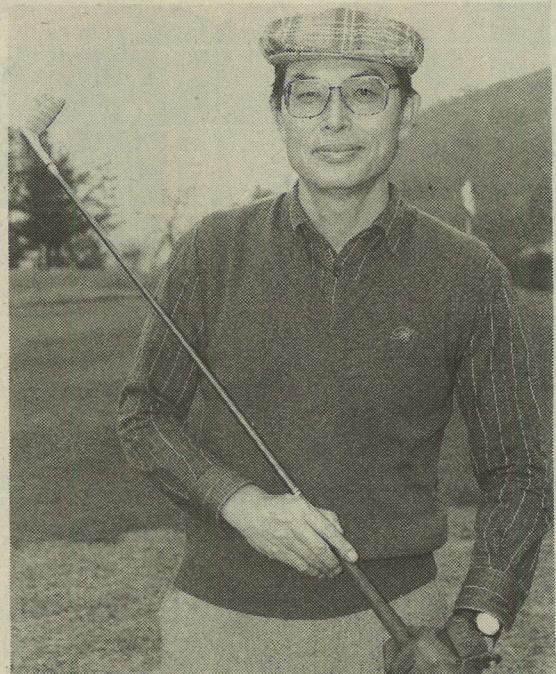


삶의 정교함에 매료 15년째 즐겨



구려 15년의 宋相現 교수는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대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한다.

體力증진·정신수양에 큰 도움

『골프는 정신적 안정과 개인수양에 좋습니다. 따라서 교수라는 직업에 적합한 운동이지요. 구려 15년의 宋相現 교수 (52·서울대법대·韓國대학 학자로서의 교수생활에 편리로운 회장은 골프연맹회장)는 골프가 개인의 유틜적 관리에 도움이 있다고 말한다.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문을 쓰며 복잡해진 신신을 골프를 통해 풀어주는 것뿐 으로 스코어조작이 의미가 있을리 없으며, 따라서 실을 윤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것이 바로 골프라고 있다. 宋교수는 말한다.』

지난 88년 남성대CCC에 서 친 11오비파 83타가 스텝스코어라고 웃으며 하는 宋교수의 모습에서 말 베에 라운드를 즐기는 전형적 주말골퍼. 宋교수가 골프에 대해 60년대에 美國코넬대학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78년 美國하버드大法大 교학 교수로 가족화장대회가 골프선수권대회가 골프선수권대회가 지난 5월 뉴서울CCC에서 만난 宋교수는 주 1회정도 한다. 골프는 가여보인다. 골프는 골프를 탐구하고 문을 쓰며 복잡해진 신신을 골프를 통해 풀어주는 것뿐 으로 스코어조작이 의미가 있을리 없으며, 따라서 실을 윤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것이 바로 골프라고 있다. 宋교수는 말한다.』

『골프는 전통적인 운동으로 과학적인 운동이다. 골프는 골프를 탐구하고 문을 쓰며 복잡해진 신신을 골프를 통해 풀어주는 것뿐 으로 스코어조작이 의미가 있을리 없으며, 따라서 실을 윤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것이 바로 골프라고 있다. 宋교수는 말한다.』

클럽·웨어 잣은 교체등 일부 層 사치 "씁쓸"

『한국대학골프연맹이 창립된 지난 84년 宋교수로서는 서양사회에서의 골프문화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고 宋교수가 골프에만 몰입하는 골프症은 아니다. 그의 구려 무려 15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학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그마한 차이가 17이라는 것 같을 것이다. 일상한다. 宋교수는 골프를 치면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의 정교함에 묘미를 느낀다. 또 과음을 부리면 마음 만큼 잘 안 된다는 골프의 속성도 과홍으로 다가온다. 宋교수는 韓國골프가 발전과정에서 부유층위주의 사치스런 레저로 비정된다.』

『학생시절 옛서울CCC에서君子里코스에서 친지들과 함께 골프를 쳐 보았던 宋교수로서는 서양사회에서의 골프문화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고 宋교수가 골프에만 몰입하는 골프症은 아니었다. 그의 구려 무려 15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학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그마한 차이가 17이라는 것 같을 것이다. 일상한다.』

『한국대학골프연맹이 창립된 지난 84년 宋교수로서는 서양사회에서의 골프문화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고 宋교수가 골프에만 몰입하는 골프症은 아니었다. 그의 구려 무려 15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학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그마한 차이가 17이라는 것 같을 것이다. 일상한다.』

신탁銀꺾고 2冠王도전 韓化

35초차로 차지한데 이어 앞서 1위를 했다고 선수단이 알렸다. 앞서 1월 베른릴대학에서 2분 13초 27로 우승했다.

『한편 이날 알렸다. 앞서 1위를 했다고 선수단이 알렸다. 앞서 1월 베른릴대학에서 2분 13초 27로 우승했다.』

『한국대학골프연맹이 창립된 지난 84년 宋교수로서는 서양사회에서의 골프문화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고 宋교수가 골프에만 몰입하는 골프症은 아니었다. 그의 구려 무려 15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학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그마한 차이가 17이라는 것 같을 것이다. 일상한다.』

『한국대학골프연맹이 창립된 지난 84년 宋교수로서는 서양사회에서의 골프문화화상을 몸소 체험하게 됐고 그에 따라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다고 宋교수가 골프에만 몰입하는 골프症은 아니었다. 그의 구려 무려 15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학자로서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그마한 차이가 17이라는 것 같을 것이다. 일상한다.』